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 **Ronni Abergel**
초청 강연 및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차 례

인사말

황창화 국회도서관 관장	07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09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10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행사개요	13
------------------------------	----

프로그램 일정표	17
----------------	----

Session 1.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초청강연

강사소개	23
강연자료	24

Session 2.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 선정과정	53
사람책 목차	58
사람책 현장배치도	59
사람책 안내자료	60

[부록] 휴먼라이브러리 소개	99
-----------------------	----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인사말

인사말

휴먼라이브러리, 소통과 공감의 광장



황창화 국회도서관 관장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황창화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 Korea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특히, 멀리 덴마크에서 오신 로니 애버겔 씨 그리고 휴먼북과 대출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접했던 것은 불과 2,3년 전이었습니다. ‘아! 이런 도서관도 있을 수 있구나. 사람을 대출해 주는 도서관이라니’ 정말 신선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침 국회도서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를 도서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국회란 국민의 지향과 요구가 소통되고 수렴되는 광장이어야 한다는 바람 때문이었고, 휴먼라이브러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와 정책을 소통시키고, 국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서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휴면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국회 내 입법 관련 전문가, 각계의 정책전문가 등이 우선 등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휴면북 등재 공모 등의 방법으로 보다 폭넓은 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들과 소통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출방식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소통방식과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세계 최초로 국가도서관 차원의 가장 큰 휴면라이브러리의 탄생을 꿈꿉니다. 이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딛는 사업을 두고 저 혼자 너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행사를 통하여 국회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휴면라이브러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단순하고 자유로운 사회혁신 방안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2013년 6월, 희망제작소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최고지도자들을 인솔하여 평생교육 혁신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덴마크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대출되는 도서관인 휴먼라이브러리는 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 한국에도 소개되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현장에서 직접 본 휴먼라이브러리는 단순하면서도 자유롭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혁신적이고 뛰어난 민주주의의 학습도구였습니다. 편견의 대상을 직접 만나보고 오해를 해소하는 이 방법은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OECD 27개 회원국 중 사회갈등지수 2위, 사회적 자본 지수 22위, 연간 사회갈등 해결비용 300조,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일상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휴먼라이브러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휴먼라이브러리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할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갈등을 줄이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인사말

편견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이 되길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지난 1월,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일본 대학생들에게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누구나학교’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나학교를 통해 1년 5개월 동안 시민 스스로 개설한 강좌가 610개인데 이 강좌 숫자는 과연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당연히 학생들은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질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많고 적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 사이 대화든 기관, 단체, 국가 사이에 대화나 비즈니스든 기준이 없을 경우 대화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기술표준원이 좀 바빴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1년에 ‘살색’이 함의하고 있는 차별적 요소로 인해 한 시민이 청원을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색’이라는 색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고 그리하여 ‘연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2004년에는 초·중등학생이 쉬운 한글 이름으로 바뀌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다시 ‘살구색’으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살색’이라는 명칭을 바꾸기 전까지는 크레파스 한 귀통이에는 여전히 ‘살색’ 크레용이 국가 표준으로 당연히 사용되는 살풍경이 연출되었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기에 제도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개인의 편견만 책망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것은 시스템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작동한 때문입니다. 강고한 제도를 두고 사람만 탓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회피하는 면피용으로 차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은 곧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차별로 이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세상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무수하고 다양한 충전연색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울한 흑백의 세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편견에 매어 있을수록 비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자신의 관계망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편견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행사개요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행사개요

1차 서울

일시: 2014. 2. 15 (토) 서울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및 2층 나비정원

Session 1, 12:30~14:30 로니 애버겔 초청강연

Session 2, 14:30~17:00 휴먼라이브러리

방법: 사람책과 대화는 40분으로 총 2차 대출 가능

[사람책 명단]

비영리활동가, 공무원, 비제도권학생, 20대, 비혼주의자, 기자, 신체장애인, 여성주의자, 채식주의자, 이주민, 아줌마, 자치단체장, 노숙인, 사회복지사, 여자대학생, 예술가, 중국인, 국회의원, 농부, 한부모가정, 동성애자, 경찰, 전라도민

2차 수원

일시: 2014. 2. 18 (화) 수원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

Session 1, 13:30~15:00 로니 애버겔 초청강연

Session 2, 15:00~17:00 관계자 심포지엄

[사례발표]

공공기관의 상설 운영 시스템 /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지역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만들기 / 숨쉬는 도서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 / 서울숲사랑모임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종합정리]

일상 시민교육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 재조명 /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네트워크 파티]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프로그램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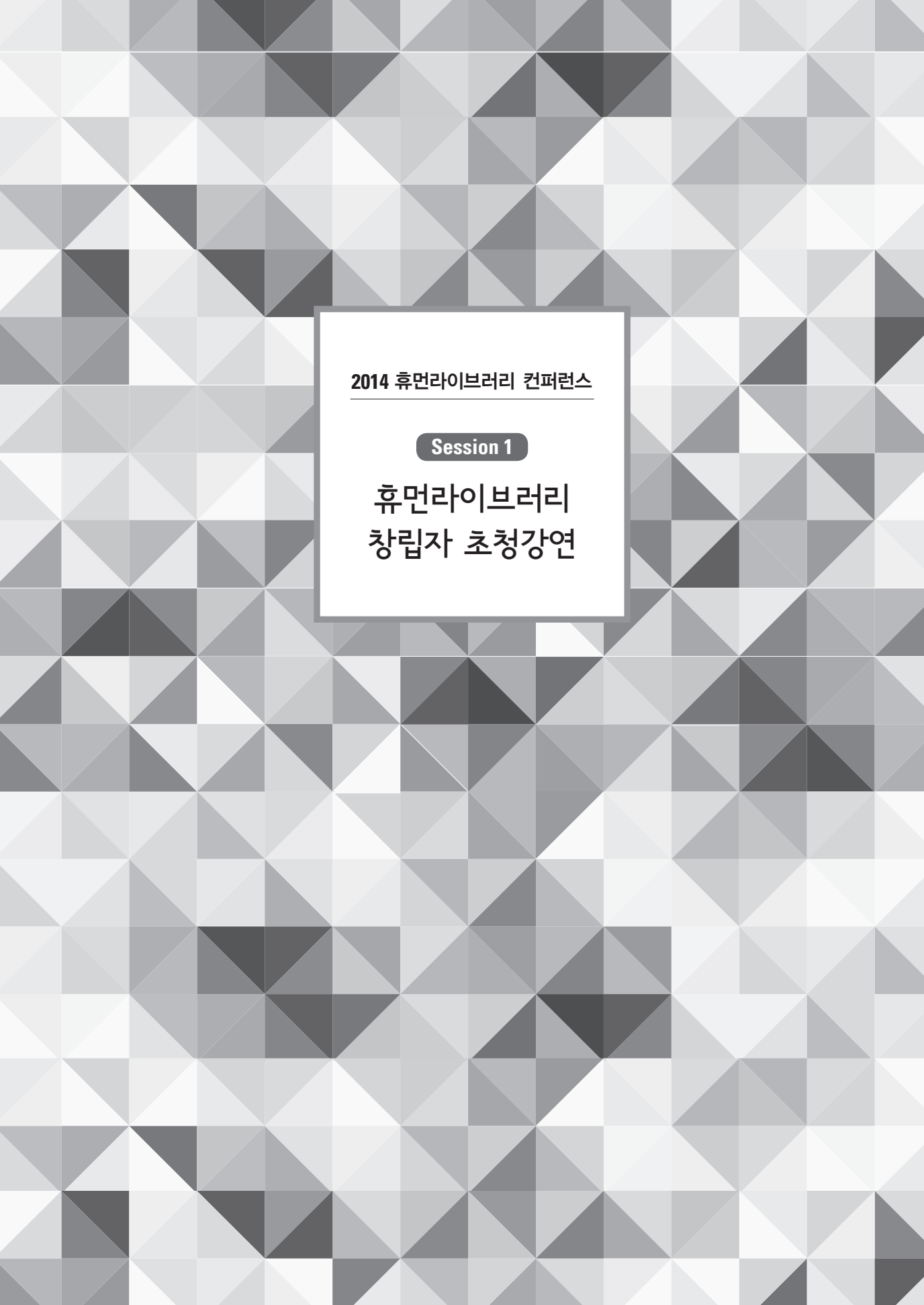
프로그램 일정표

02/15(토) 서울

No.	시간			주요내용	장소
	부터	까지	소요시간		
Session 1 초청강연	12:30	12:50	20	개회사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
	12:50	14:30	100	[초청강연 및 질의응답] 로니 애버겔	
Session 2 휴먼 라이브러리	14:30	14:45	15	이동	국회도서관 2층 나비정원
	14:45	15:00	15	컨퍼런스 운영방식 소개	
	15:00	15:40	40	1차 대출	
	15:40	16:00	20	휴식	
	16:00	16:40	40	2차 대출	
	16:40	17:00	20	마무리	

02/18(화) 수원

No.	시간			주요내용	장소
	부터	까지	소요시간		
Session 1 초청강연	13:30	13:40	10	개회사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
	13:40	15:10	90	[초청강연 및 질의응답] 로니 애버겔	
Session 2 관계자 심포지엄	15:10	16:00	50	[사례발표]	수원시 평생학습관 1층 식당
	16:00	16:20	20	[종합정리]	
	16:20	16:30	10	이동	
	16:30	16:50	20	[네트워킹파티] 1차 모듬	
	16:50	17:10	20	[네트워킹파티] 2차 모듬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complex, repeating pattern of triangles in various shades of gray, creating a geometric, mosaic-like effect.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Session 1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초청강연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초청강연

1. 강사소개

로니 애버겔 *Ronni Abergel*



덴마크 생. 코펜하겐에서 친구가 칼에 찔렸던 사건을 계기로 일찍부터 비폭력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1993년 가을 덴마크의 'Stop The Violence Movement'의 창립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젊은 세대의 비폭력운동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NGO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에 이 운동은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까지 그 움직임을 확대하게 되었다. 방법론과 콘셉트의 폭넓은 실행을 돕기 위하여 2008년 휴먼라이브러리 조직(Human Library Organization)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이력

- 1993-1996 'Stop The Violence' 공동설립자, 회계 담당, 대변인으로 활동
- 2002 'European Youth Against Violence Network', 'Nordic Expert Forum on Street Gangs and Racism' 공동설립자
- 2004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The Living Library Organisers' Guide> 공동저술
- 2008-2010 City of 코펜하겐 'Center for a Safer City' 컨설턴트, 심야 시간 폭력 예방 활동 관련 파트너십
- 2012- 코펜하겐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2. 강연자료

표지만으로 책을 평가하지 마세요

-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 이해하기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니 놀랍고 기쁩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웃음),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음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아니라 휴먼라이브러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휴먼라이브러리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 오가니제이션(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이라는 단체의 CEO이자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오가니제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홍보하고 행사가 취지에 맞게 열리도록 지원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와 노르딕 미니스터 카운슬(The Nordic Minister Councils)에서 발행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Guide to Organizers of the Human Library)>를 집필했습니다. 또한 서던 덴마크 대학(The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놀라운 지역을 방문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냅니다. 제가 자라난 곳이고 현재,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작년에 갑작스럽게 제 오랜 파트너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휴먼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공통점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저와 제 친구들이 2000년 2월에 함께 모여 앉았던 이유와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스탑 더 바이올런스(Stop The Violence, 폭력을 멈추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그때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직장 동료,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에 꺼끄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을 알고 싶은 그런 주제들 말입니다.

결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마주 앉아 일상적인 주제가 아닌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오해, 편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아니, 상대방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형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중립적인 정보 센터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고, 궁금한 정보나 자료를 찾는 공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형식이 가장 알맞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뭔가 불만이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눴본다면 서로 차이가 해소되거나 새로운 시각 혹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셈 이죠.

이렇게 해서 휴먼라이브러리는 새로운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기존 도서관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 도서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들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대학, 컨퍼런스, 직장, 도서관 등 진행 장소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대화 공간에 대한 요구는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전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이슈가 점점 중요해져 가고,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증가는 해당 지역 사회에 강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시각이 확장될수록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단, 개인의 다양성이 모여서 지역 전체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대화와 열린 마음을 통해서만, 오래된 관습적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꼬리표를 떼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이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휴먼라이브러리가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배를 6번이나 칼로 찢리는 일이 없었더라면, 저와 제 친구들은 ‘스탑 더 바이얼런스’를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활동을 통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겪은 폭력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고, 전쟁을 딛고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언젠가는 휴먼라이브러리가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실수로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나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었죠…….

저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개념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전 세계에 적용 가능성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지구상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위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눌 일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입니다. 이들은 휴먼라이브러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종교, 사회적 지위나 배경, 직업, 교육, 성 정체성,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많은 편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곤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편견들에 도전해 보고 싶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매우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람들을 유형화하는 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저를 판단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 선 지 몇 분 만에 말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이나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뭔가 잃을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선부른 판단 정도가 아닐까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한국인에 대한 몇 가지 인상이나, 한국인에 대해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가지게 된 생각들이죠.

제가 한국인에 대해 가지게 된 첫 번째 부정적 인상은 스파이크 리(Spike Lee) 감독의 1989년 영화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를 통해서였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동네인 베드스투이(Bed-Stuy) 지역의 길모퉁이에 3명이 술에 취해 앉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건너편 야채가게를 바라봅니다. 야채가게 앞에서 한국인이 사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지역 흑인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상점 모두를 흑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한국인에 대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미국에 온지 고작 2주밖에 안된 한국인들이 이곳 흑인 지역에서 가게를 열고 있다며 경멸스러운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서유럽 국가의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 하나는 이민자들이 수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추진력이나 일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헌신, 이민 사회에 대한 기여는 분명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는 제게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인상입니다.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내용도 있을 테고, 인정할만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단,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단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일 뿐이니깐요.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한국인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얘기한다.”

“한국인은 폐쇄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외부인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 융합되기를 원치 않는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인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 심하게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인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항상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채찍질한다. 과도할 정도로 야심이 넘치며 진지하고, 긴장한 채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 내용은 한국에서 1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한 교육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기사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는 기사에서 한국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업 전에 학교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늦은 밤에 그저 잠을 자기 위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말하죠. 그리고 다음날엔 똑같은 일과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한국 아이들에게는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처럼 굴거나 그 시기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30년 후 덴마크에서 우리는 어떤 직장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뒤쳐지고, 똑똑함에 있어서도 뒤쳐질 뿐 아니라 일주일에 아주 편하게 37시간을 일하는 현재와는 달리 그 때가 되면 50~60시간을 일하도록 요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 대한 저의 마지막 고정관념은 직장과 교육이 이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직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직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할 일을 잘 해냈지만 조직의 요구가 변했거나 조직이 제가 한 일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도 많이 실망했고 제 자신이 실패자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제가 실패자가 아니라, 부실한 조직 경영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한국인은 직장을 잃고 난 후 집에 돌아가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냥 직장일 뿐이다, 일은 또 나가서 구하면 된다,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어떻게 내가 모든 일자리에 꼭 맞는 사람이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국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이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학벌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의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특징은 특별히 한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어떤 위계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지위가 학벌이나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학벌이나 직업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한 사람이 표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한국인에 대한 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중 과연 몇 가지나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확인해 볼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이 휴먼라이브러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직접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대면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휴먼라이브러리 개최와 관련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누군가가 교육수준, 인종이나 민족, 종교, 생활방식 등으로 인해 비난 받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가?”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체결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타이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판단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갈등은 더 고조되고 너와 나 사이의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화합은 지역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화합할 수 없다면 사회는 위협에 처하게 되고 우리 모두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저의 모국인 덴마크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매우 작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서부터, 레고(LEGO) 블록,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맥주라 할 수 있는 칼스버그까지 덴마크인은 그들의 발명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 세계에 문화를 개방하면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무역, 판매, 운송(머스크(MAERSK)라는 회사도 잊어서는 안 되죠.) 등이 유명하죠.

매년 진행되는 국가 행복도 조사에서 덴마크는 오랫동안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마치 덴마크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 중에 이 결과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조사에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금융위기와 불황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절망과 체념이 표면 아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을 쥐어짜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여 극단적이 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덴마크 젊은이들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머니 속에 값비싼 삼성 스마트폰이나 애플 아이폰을 넣고 다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길거리에서 극단적인 사람들, 종종 소외지역이나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강도 행위에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현재 덴마크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단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신 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사이에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딸의 아이폰이나 값나갈만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밖에 나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매일 걱정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강도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생각할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덴마크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회 화합을 이루어내어 그 누구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기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밀퍼드라는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최근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던 미들타운이라는 곳에서 1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러한 총기난사 사건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징후를 보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LA 타임즈에서 읽었던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자신이 신고 있던 150달러짜리 새 나이키 운동화를 뺏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작 스마트폰이나 운동화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서있는 것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기본 원칙과 기준만 이해한다면 간단합니다.

먼저 행사가 열릴 해당 지역 사회에 어떠한 편견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편견을 대표해 독자와 만나게 될 사람, 즉 ‘사람책(Human Book)’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

장소와 운영 시간, 대출 시간 등을 결정하고 홍보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공간에서 사람책 대출이 이루어지고, 독자와 사람책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와 협력하면서 행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바로 행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사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이 행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한 행사여야만 합니다. 그럴만한 용기가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한 순간이라도 독자들이 자신의 편견에 도전할만한 용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독자들을, 그들의 의지를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몇몇 단체들은 휴먼라이브러리가 해당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괴물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 때문에 저와 제 동료들은 괴물 소탕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러한 일에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정말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 목적을 혼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한 단체가 휴먼라이브러리 콘셉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는 정신 질환 이외에 다른 편견을 행사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다. 그래서 노숙인과 관련된 사람책만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거의 어떠한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의미를 특정 이익 집단의 선전이나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어떤 편견에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우리는 괴물 같은 행사라고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이름 하에서 이러한 행사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괴물 행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소속된 작은 집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단체나 사람들의 행사들이었죠. 괴물 행사 중에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NGO는 LGBT에 대한 불관용 이슈를 다루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LGBT에 대한 편견은 충분히 도전 받아야 할 이슈이지만, 사람책을 LGBT로만 채운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자극이나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극우주의자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극우주의자들은 사람책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LGBT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게이 한 명과 레즈비언 한 명을 다른 편견을 대표하는 사람책 15명 정도와 섞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접근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자극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괴물이 아닌 진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극우주의자와 같은 사람들과 얽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반드시 괴물 같은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러시아 보로네시라는 지역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 단체는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 증진을 위해 지역 북 카페 겸 도서관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와 사람책에게 후추가루를 뿌려대는 한 젊은 극단주의자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경찰이 와서 곧바로 그를 체포해갔기 때문에 그에게 관용이나 이해를 베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나 LGBT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곳이라서 휴먼라이브러리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면,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숨겨야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휴먼라이브러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난이나 편견,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과 이해를 증진시켜서 갈등이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휴먼라이브러리의 미션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미션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도록 조종당하고 억압받는 세상이 아니라, 개인들의 소중한 놀라운 개성과 다양성이 풍성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관용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대학으로, 조그만 동네에서 큰 도시로, 단일 국가에서 대륙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먼라이브러리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덴마크에서 시작한 휴먼라이브러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며 헝가리, 노르웨이, 포르투갈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현재 60개국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가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7대륙 전체에서 휴먼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휴먼라이브러리라는 형식을 원하긴 하지만 다양성 추구라는 휴먼라이브러리 원칙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나 존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책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해당 편견에 대해 독자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원래 취지 그대로 행사가 개최되어, 한국 사회에 휴먼라이브러리의 진정한 잠재력과 영향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제대로 구현해낼 용기도 없는 단체가 단지 홍보나 마케팅에 급급해 행사를 진행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역의 리더로서, 이러한 미션을 수행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휴먼라이브러리 아름다운 정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사람책, 즉 전 세계 공통적인 편견도 분명 존재하지만, 많은 편견들이 그 내용에 있어 각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사를 개최할 때 각 지역의 문화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진행되는 휴먼라이브러리의 운영자들 대부분은 모든 사람책에게 스톱워치를 제공해 제 시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람사전, 즉 통역관을 준비해 언어가 다른 사람책과 독자의 대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휴먼라이브러리에는 훌륭한 사람책과 훌륭한 운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중립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인된 파트너 단체에 의해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는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용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이자 이번 행사를 개최한 국회도서관, 희망제작소 그리고 수원시평생학습관에 고마움을 전하며 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와 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가 휴먼라이브러리 한국 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서로

합의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에서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괴물 같은 행사가 출현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공식 파트너로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길 바라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How the Human Library can help build understanding for diversity

“Welcome, its great and amazing to see so many people here today.”

Although I would love to think that you are here because of me!!! (smile/laugh) I understand, well and appreciate, that it is the idea and concept of the Human Library that has brought you all out on this winter cold day in Seoul, thank you for coming and joining us here.

But let's get right to it~ as you heard I one of the inventors of the Human Library. I am also the CEO & Founder of 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 a unit that operates all across the world to promote and quality ensure Human Library events. And I am the author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Nordic Minister Councils "Guide to Organizers of the Human Library". I have a degree in Journalism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and when I am not visiting amazing countries and meeting new people. I live in Copenhagen, Denmark, the city where I grew up and now reside with my two children. Last year I unfortunately and every unexpected became a widower, as my partner and the mother of the children passed away suddenly.

But let's get started with primary reason why we are all here. The Human Library... To know, understand and learn more about the Human Library and how this concept and methodology can aid civil society in closing the gaps between people, who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still have a lot more in common than what is keeping them apart.

That is one of the primary reasons why me and my colleagues at the Danish Stop The Violence Movement sat down in February 2000 and developed the idea and methodology behind the Human Library, which has now been introduced in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created the Human Library simply because we wanted to offer an opportunity for dialogue on difficult issues. Things you cannot talk about on the street or in the work place or with friends. But rather issues that concern us, issues we would like to know the answers to.

To create a safe space where people who might otherwise never meet, could sit down and talk on a topic out of the daily range and more specific, issues where we recognize our own stereotypes, misconceptions and prejudices. A place for understanding or at least learning about the difficult other.

We clearly felt that in order to keep this dialogue space neutral, then we would have to create a framework similar to a library, as libraries worldwide are considered neutral information centers. A place to seek out facts, a place to learn, in short, the place to find the information we seek.

Our thought was if we could get people, who think they don't like each other "type" or who recognize that they have "issues" with some groups of people, to sit down and talk about those issues, then differences might be resolved, or new perspective may be offered to the reader as well as new insight for the book. Paving the way for a new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ased on insight, knowledge and a personal meeting between people.

A Human Library was born offering information like no other library before it. Today this information is offered at different frequencies in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schools, colleges, universities, conferences, work places, libraries and much more.

You see there is a need for this space on a global level. As our societies are changing and the world is becoming smaller, we all experience how our communities are also looking different. The diversity of the world has become more apparent and increased mobility has seen many countries experience immigration of alien work force.

Diversity can and should be a strength to a community. The broader our knowledge, competences and insight is, the more challenging tasks will we be able to solve together. But only if we manage to utilize the diversity to the common benefit of the entire community and society as a whole.

We created the Human Library because we thought it could change the way people view each other. Even more we believed that it could get people talking with each other, rather than about each other. Only through dialogue and open minds, can we begin to take advantage of the diversity and leave behind the stigma of old fashioned perceptions and general misconceptions.

We did it because we think it can help build a more peaceful society for all people. And because we saw that this Human Rights orientated methodology has an endless potential for doing good in the community.

But somehow I got involved in all this by fate I guess. If a friend of ours had not been stabbed six times in the stomach while out on the town in Copenhagen. We would most likely never have started the Danish Stop The Violence Association. And it was during this work we became wise to the dynamics of violence and the correlation with prejudices and stereotypes. Thus we would have never invented the Human Library and I might never have made my first visit to this amazing country that has lifted itself out of post conflict and into prosperity. Only thing missing seems to be political stability in the region. I would hope one day, the Human Library could also aid you in rebuilding relations, once the region becomes a post conflict area.

So you could say I became an activist for social change by mistake and well there are worse things in life I could have become...

I quickly realized not only the power of the concept but the potential for global implementation. You see there are no thinking people on this planet, that do not have stereotypes and prejudices. It is simply a part of human nature and an integral part of the way we navigate diversity. Everyone applies

labels to others, to people we do not know, people we are different from, people who live life different or believe in something different.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Human Library offers access to. The people we normally might talk about, but typically would not talk with. People who have volunteered to share their life experiences under a given topic that relates to their life situation, condition or framework. Most ofte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or suffered from stigma, stereotypes or prejudices. Some also victims of discrimination based solely on their religion, social status, background, occupation, education, sexuality or ethnicity.

It was my realization that I myself had a lot of prejudices about people I did not know and that they were based on information that was unconfirmed, that got me on track for the idea. I realized that I might be one of many that would be willing to challenge my own prejudices, to see if what I was thinking I knew about other people, was even close to being true.

You see there is no evil in making assumptions or navigating diversity by type casting people based on very few informations. We all do it. In fact many of you did it already with me now I have been standing here for a few minutes.

You look at me, you listen to me and you decide what type of person you think I am. But is it true what you have decided? Maybe for you but I might not agree. So why not sit down and talk about it. Maybe you will learn something unexpected, maybe you will gain insight and perspective on the subject. What do you have to lose? Your opinion on someone?..

Before coming here to visit your country I gave some thought to what I was thinking about people from South Korea. Based on the few impressions I have had in my life and on the stories I have heard or been told about South Koreans.

My first negative impression was bestowed upon by American movie Director Mr. Spike Lee in 1989, when I first watched his film 'Do The Right Thing'. Three drinkers are sitting on their street corner in Bedstuy, New York, part of Brooklyn. The oldest of the drunks looks across the street at the vegetable shop on the other corner. Outside is a Korean man putting apples in place. The drunk then goes on to complain about the conditions for black people in the neighbourhood. He complains that all of shops on the street are owned by other people than black people and then goes on to make a very derogatory remark about the Korean people.

Something in the context of "they have been in the country two weeks and then they open up a shop in a black neighbourhood". Now one of the complaints of many Western European governments of today is that immigrants are passive and do not contribute to society. But surely the high level of initiative, work morale and dedication of the Korean people, should be considered a valued contribution for any country.

Spike Lee somehow got me to think that it was a negative. A negative that Koreans were willing to work so hard everyday to achieve the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 Now I let my thoughts fly and came up with some of the stereotypes that I think are predominant about people from South Korea and just for fun, to show you how these things exist I want to share some of them with you here today. Maybe you will laugh or even recognize something in them, so here goes and please do not take offense as this is merely an exercise to illustrate the dynamics of stereotypes and thus underline the need for Human Libraries in civil society.

"Koreans talk extremely fast"

"Koreans are part of a closed community it is nearly impossible for outsiders to enter social circles and thus they are not willing to integrate with other non-Korean community members, some may view this as being snobby or reserved or even worse, intolerant to people from other cultures –why else would they not want to integrate with them? Let them in?"

"Koreans push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o always perform or aim to perform at the very highest level possible. As in you are overly ambitious and way too serious and uptight" – I got that from a letter I read in the International NY Times, a letter by an American educator who used to teach English in South Korea for 12 years. He described in detail the school day for young children and how they start early by cleaning the school and classrooms, before the start of the teaching and all through to the late ending with buses taking the kids home, basically to just sleep, get up and go again. He put together a days program in a way so that I thought.

"Oh my god, there is no room to play. No space for being a child and to enjoy childhood. And if this continues, we will have no jobs left in Denmark in 30 years from now, because we are simply being out~educated, out smarted and pressured to work 50~60 hours a week, rather than the extremely comfortable 37 hour work weeks we have in Denmark today."

Some last reflections on my own stereotypes out about Koreans. Is related to the work place and the status of education. It seems to be a personal disgrace if you somehow fail to be a huge success in the work place. I once lost a job and I actually felt I had done a good job, but somehow the needs of the workplace had changed or they were not happy with my contribution. But surely I was very disappointed and felt somehow that I was a failure. But later on I realized that I was not the failure, but the victim of a bad management culture in the workplace.

My prejudice about Koreans is that if you lose your job, its like losing your life and your identity and that some people will actually go home and commit suicide because they lost their job. I mean, come on people, it's just a job...there are more jobs out there and we are only people. We cannot expect to be a perfect match to every workplace.

Finally I have this preconception that education is everything in this dynamic place. If you have a high education you have status. If you don't well then you could say that you are worth less. This is not an especially South Korean tendency but something that is widespread in develope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t seems we have built an education hierarchy and the value and status is closely tied into education and job position...but is that all we are? A school and a job?..I would hope for so much more.

I am not sure how many of the before mentioned stereotypes are true, but I sure hope to get a chance to find out, during my stay here in South Korea. And that is part of the essence of the Human Library approach. To offer this opportunity for people to challenge their ideas about other people.

And the Human Library is the vehicle that will allow you to challenge these stereotypes and go behind the facade or surface if you like.

But before we get into the practicalities of setting up and presenting a Human Library. One more question must be answered. And that is "why should we even care, that some people feel stigmatized, socially excluded or marginalized because of their education, ethnicity, religion or lifestyle?"

In my view, it is a basic Human Right to be who you are. As long as you live within the rules of law and abide by the social contracts in your society, you should be allowed to be who you want to be without being judged only on the "cover" or "title".

If we do not manage to create platforms for participation and to ensure inclusion, we will continue to see more and more divided communities and conflicts will continue grow as will the gaps between you and your fellow man. Cohesion is the glue of the community, the backbone that ensures peace, safety and prosperity. Without it societies will deteriorate and lose their ability to ensure quality of life for all.

And to prove this point I would like to give an example from my home country, the Kingdom of Denmark. A very small nation but with a proud history.

From the fairy tales of Hans Christian Andersen to LEGO and probably the best beer in the world, Carlsberg. Danes are proud of their inventions and have built their prosperity by being open towards

the world. Trading, selling and well let's not forget MAERSK and shipping.

In an annual study of world happiness, the Danes have been at the top for years. Making it look like we are the most happy people in the world. No one in Denmark believes that, but the survey keeps showing we are at the top.

But desperation lurks under the surface as the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hit Europe. Politicians turned the screws on the underprivileged and unemployed, making matters only worse and creating an even bigger social imbalance. But what happens to a society when you allow people to drop to the bottom? They become desperate and what do desperate people do? Desperate things...

This means that our young people are now put at risk because so many of them carry an expensive Samsung Smartphone or Iphone in their pocket. They are targeted in street robberies by desperate people, often from deprived areas and from families with very low social status. Crime of this type is on the rise, creating more insecurity and again splitting people up. Between those who have found their place in society and those who are not allowed or somehow systematically being frozen out, just because they are from a Muslim country or because they are disabled or because they have suffered from a mental illness. This again takes away from the coll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society. If I have to worry everyday my child is out to have fun with friends, that somehow will assault my daughter, because she has an Iphone or other expensive goods of value. Our children are brought into the line of targets and this is just unacceptable to me, with the amount of tax I am paying. I expect the society to be a safe place and that the authorities will do their utmost to ensure cohesion so that no one is desperate, that they will attack or kill someone else for scraps...

I love the opportun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used to live there as a child, I went to High School in New Milford, Connecticut. Only 10 miles from Middle Town, the setting of a recent school shooting. And the shootings are symptomatic to the exclusion I am talking about.

Or as one story I read from the Los Angeles Times years ago about an african american man who has been shot and killed because someone wanted to take his new 150 dollar NIKE Air Jordan shoes from him and he resisted. Do we really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you can lose your life for a phone or a pair of shoes? I know I do not and that is why I am standing here today.

Well and because I know that the Human Library can help us address some of these challenges.

Now it is really easy to get going and setup a Human Library. In fact once you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and criteria for a Human Library, it's pretty simple...

First you identify the topics that are relevant to the community in which you are planning to present. Next you find good representatives of those topics, i.e. the Human Books, that are to go on shelf and meet the readers. After preparing the books you start the practical part of preparing the event. Deciding on location, opening hours, duration of loans, marketing materials etc...and before you know it. You are lending out people and building an understanding for diversity through earnest dialogue in a framework provided by you and well in partnership with us.

The rules for organizers are simple. Content, content, content. If the content is not right and the aim and objectives of your event are not clear. Well then think again. Stereotypes and prejudices must be addressed. If you are not courageous enough to do that, please find something else to do. And if you think for one second that readers do not have the courage to challenge themselves, then you are indeed underestimating the readers, their motivation and the potential outcomes of a Human Library.

Now some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have seen the Human Library as a great marketing tool to bring about attention to their cause, target group, problem or theme. Thus some have created monsters and turned me and my staff into monster killers. Something we prefer not to have to spend time on. As this concept is so straight forward, there could be no mistaking its aims and objectives.

One organization working for the mentally ill liked the idea but did not want to share the platform with people who were facing other prejudices. So they tried to setup a Human Library event full of books all relating to being homeless. This is not a Human Library as Readers have very little choice. In fact it reduces the methodology to mere propaganda or a marketing for a special interest group. Readers have very little choice and you might say that you do not really challenge anything. This is a monster and we will not allow it in our name.

We have seen many different monsters from selfish organizations or people only concerned with their own little group. And it has even gone very wrong for some of them. Like in Poland, where a local LGBT NGO got the idea to use the Human Library to try and address the very high level of intolerance against Gay, Lesbian and transsexual communities. A well worthy cause to address but when you fill up a Human Library only with LGBT books, you can also become a provocation to some and thus an easy target.

The event in Poland was disturbed before it even opened by radical right wing extremists who told the books to go home or get a beating. Obviously Poland has issues with this topic and so bringing one Gay and one lesbian for example and mix them with 15 other books on other topics, would be a much more viable approach and not a provocation in the same sense. But it would also make it a true Human Library and not a monster.

But you do not have to create a monster to get in trouble with crazy people. In Voronezh, Russia our local partner hosted a Human Library for tolerance and understanding at a local book cafe and library centre. The event was interrupted by a young extremist who used pepper spray against a book and a volunteer organizer. He screamed out loud that there was no need for tolerance and understanding, just before the police arrested him. Russia is a difficult place as there is widespread intolerance towards especially members of the LGBT community. You can literally get beaten up or killed on the street, if you are openly GAY. Now is that what we want for our children? That they have to hide who they are to survive? And what quality of life will that bring them?

So I hope it's clear to everyone here that the aim of a Human Library should always be to address stigma, prejudice and stereotypes, that are common in the local community.

To build relations, cohesion and understanding and prevent violence and conflicts. We welcome you to join us on this mission to build a better world. A more tolerant world that benefits fully from its amazing diversity. Rather than streamline people and force everyone to be and do and think the same.

And although we realize this is not an easy mission. We continue to grow. From library to Universities, towns to cities, and countries to continents. Stereotypes and prejudices are everywhere and so should the Human Library be.

From Denmark we went on to Hungary, Norway and Portugal. To test the adaptability and potential for implementation in other countries. We found it had global appeal and from there we gone on to another 60 + countries with Africa joining us this year making it all 7 continents.

We came to South Korea a few years ago but noticed that many who wanted to use our concept did not respect its principles of diversity in content and that books should not be storytelling but rather enter into an open dialogue about their topic.

So now we have come to re~launch the concept. To ensure that this serves its purpose and is allowed to deliver its full potential and outcomes to the civil society of South Korea and not just be a marketing instrument for desperate organizations or companies, that are without the courage to do it right. You are all here, because we believe you are among the leaders of the communities, that have not only the potential to lift this task but also the right approach to building a better society.

I personally look forward to seeing the Human Library Korea, grow into a beautiful garden that will flourish and enrichen your society and raise the quality of life for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or somehow deselected.

And please remember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stigmas and stereotypes. Some are universal bestsellers you might say but others are indeed specific to a country or region. And in each country local adaptation must be done, so that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our cultures and mentality. Like in the United States, most organizers provide a stop watch to every book, so they remember to keep the time and not have a late return.

In other countries we offer dictionaries that help translate books and aid with the reading. Finally something that is universal to all events. We provide great books delivered by great people and hosted in a neutral framework. Events organized by official partners that are engaged in the community, engaged in creating a social change, in building tolerance for those less tolerated, despite their human right to be who they want to be....

I want to close on a thank you to our partners and hosts from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Hope Institute and the Lifelong Learning Centre in Suwon. Without their great efforts and commitment, we would not be here today and for that I am indeed very grateful.

We have agreed with the Hope Institute that they will serve as the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Human Library Korea and as such they will help quality ensure your events and to ensure that no more monsters are born.

Thank you again for your attention and for your dedication to deliver strong content and give readers the chance of a lifetime.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hope many of you will become official Human Library Organizers under the Hope Institute umbrella.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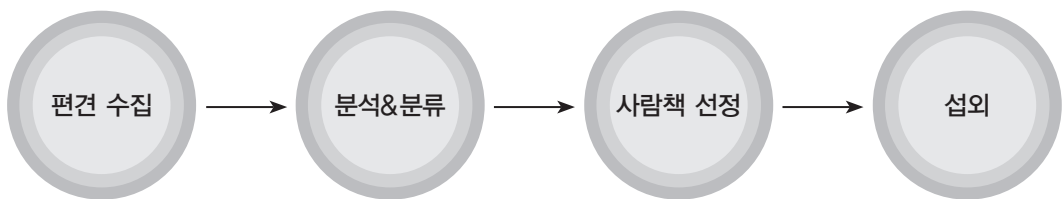
Session 2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 선정과정

- 조사기간 : 2013년 10월~12월(3개월)
- 조사방법 : 페이스북, 해피로그 등 온라인 / 주관식형 설문지 통한 오프라인
- 응답수 : 약 800개
- 응답자 수 : 약 250~300명(오프라인 약 240명, 온라인 약 40명)



1. 편견 수집

어떤 ‘기준’ 으로 사람책을 선정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면면(面々)’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책이어야 한다



다양하고 넓게 만연해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편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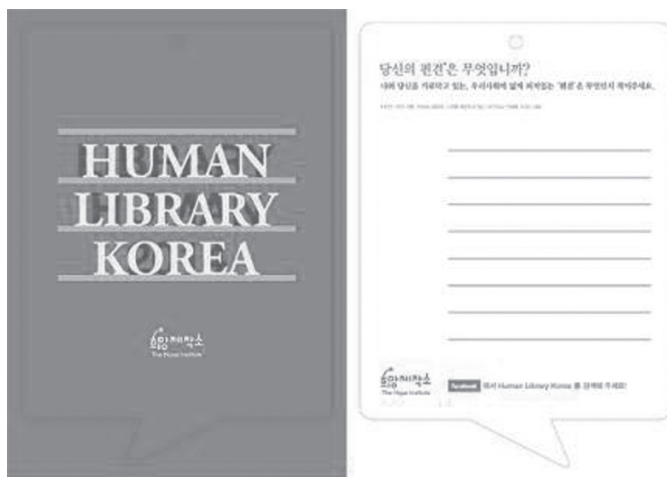
① 온라인

- 희망제작소 휴먼라이브러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 올리기
- 희망제작소 공식 홈페이지 휴먼라이브러리 게시물에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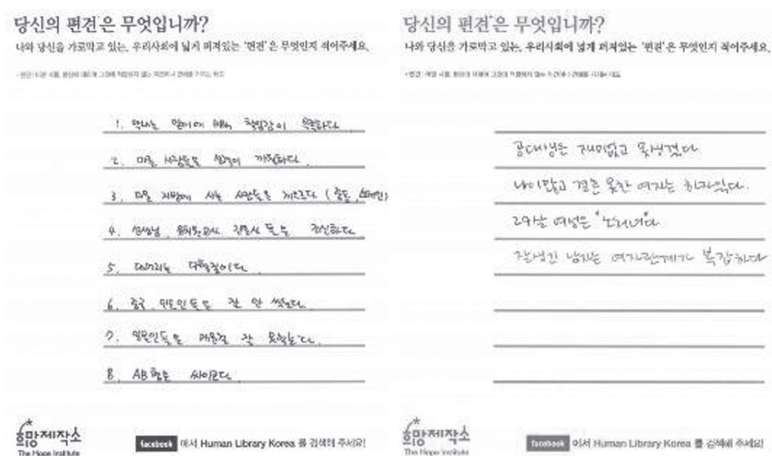
 ▶ Human Library Korea 2013년 11월 14일 오늘 점심... 동료들과 밥을 먹다가 욕하는 한마디!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어!" 아닙니다! 편견이에요!!!!	 ▶ Human Library Korea 2013년 11월 11일 이건 제가 깨고 싶은 편견이에요. '중국사람들은 주변에 무신경하고 무례하다'
 ▶ Human Library Korea 2013년 11월 13일 서울 근처 학벌에 관한 편견 = 여대생에 대한 편견, 이름만 대면 누구든 아는 명문 ○○대에 대한 편견 등.... 대학교에 와서 학벌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A대생들이 예쁘다" "J대생들은 공부만 한다" 등.... 웃고 넘길만한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것도 있었어요.	
 ▶ Human Library Korea 2013년 11월 6일 이쁘거나 멋진 사람들은 애인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 담배피는 학생들이 불량학생일 것이라는 편견 디자이너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을 것이라는 편견 연예인들이 편하게 돈을 번다는 편견 등등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편견인 것 같기도 한 저의 생각입니다.	

② 오프라인

-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 ‘내 안의 편견 찾기’ 말풍선을 이용, 워크숍을 통한 시민들의 편견 수집



편견 수집용 말풍선 디자인



시민들이 작성한 편견 리스트

2. 분석&분류

① 수집된 800여 개 편견리스트를 소재가 유사한 것끼리 임의로 묶어 주제별로 정리



② 큰 주제로 나눈 후 주제별 해당 편견 정리&분석 (아래 예시 참조)

직업	공무원	비리만 저지르는 집단 고지식하며 의사소통이 어렵다. 변화를 싫어하며 안정을 추구한다.
	정치인	다 거짓말쟁이에 싸우기만 한다.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한다. 전부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연예인	자기가 가장 특별한 줄 안다. 아이돌은 생각이 없다. 돈을 편하게 번다.

외모	뚱뚱	느리고 게으르다.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을 것이다. 불행하다. 여성성이 없다. 과도하게 느긋하다.
	마름	성격이 까다롭다. 예민하고 까칠하다.
	외형	키가 크면 싱겁다. 힘 센 사람은 무식하다. 예쁘거나 잘생기면 얼굴값을 한다.

성 별	비혼/독신	비혼자는 뭔가 문제가 있다. 독신 여성은 성격이 과격하고 까칠하다. 미혼 남성은 어딘지 모자라다.
	여성	젊은 여성의 생활은 불완전하다. 운전을 잘 못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성적이다.
	남성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만 본다. 남자 요리사가 요리를 더 잘 한다. 남성은 권력지향적이다.

3. 선정

정리된 편견리스트 중 상위 분야 내 선정 → 한국 사회 내 가장 많은 편견을 상징

+

희망제작소 내부 & 전문가 자문 회의 후 선정 → 공통의 문제의식 도출

+

휴먼라이브러리 공식 매뉴얼 & 국내외 시행 단체 사례 참고!

II

총 23개 분야의 사람책 섭외 대상 리스트 선정

사람책 목차

No.	분류	책 제목	사람	소속 및 직함
1	휴먼 라이브러리	전직 비행청소년, 세계를 누비는 활동가가 되다	로니 애버겔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2	공무원	철밥통으로만 알기엔 부족해	강평석	완주군청 마을회사육성 팀장
3	비제도권 학생	하루 24시간을 조각하는 소년	김경보	지구마을청년교육 협동조합 이사
4	20대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김경현	시인
5	비혼주의자	나는 '나'와 결혼했다	김선희	그리다협동조합 조합원
6	기자	김 기자의 소심한 '바로잡습니다'	김성환	한겨레21 사회팀 기자
7	신체장애인	장애에 적응하기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8	여성주의자	저는 여성주의자가 아닙니다만	노재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9	채식주의자	채식하는 보디빌더	도혜강	베지테리언 피트니스 코리아 대표
10	이주민	우리 힘으로 바꿔 나갈 거예요	뚜라	미안마센터 공동대표
11	아줌마	아줌마니까 할 수 있는 백만 가지 이야기	류인혜	주부
12	자치단체장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꿈꾸며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13	노숙인	매일 빅 이슈를 품에 안고 안테나 세우는 남자	서명진	빅 이슈 판매원
1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천사가 아니다	오영식	시소와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 팀장
15	여자대학생	여대생이어서, 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유지주	이화여대 국제학부생
16	예술가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있다	이덕순	화가
17	중국인	중국인도 다 달라요	이철	재한중국유학생연합회 사무국장
18	국회의원	환갑의 정치 신인, 인사 드립니다	이학영	19대 국회의원
19	농부	쌀 한 톨이 품은 이야기	장명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 부위원장
20	한부모가정	편부모가 아니라 '한'부모입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21	동성애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정율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2	경찰	나는 오늘도 경찰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달려간다	조효익	충남 당진경찰서 경장
23	전라도민	전라도 사람은 왜 그래?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

사람책 현장배치도

사회자 연단



1. 휴먼 라이브러리



2. 공무원



3. 비제도권 학생



4. 20대



5. 비혼주의자



6. 기자



7. 장애인



8. 여성주의자



9. 채식주의자



10. 이주민



11. 아줌마



12. 자치단체장



13. 노숙인



14. 사회복지사



15. 여대생



16. 예술가



17. 중국인



18. 국회의원



19. 농부



20. 한부모가정



21. 동성애자



22. 경찰



23. 전라도민

식수대

출입구

사람책 안내자료

1. 비행 청소년, 세계를 누비는 활동가가 되다



—
휴먼라이브러리
—
로니 애버겔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

서문

나는 소위 ‘비행 청소년’ 이었다. 반항심에 어린 시절을 함부로 보냈다. 그러다 우연한 폭행 시비로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그 순간 펄떡 정신이 들었다.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난 소중한 내 친구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왜 내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고, 이후로 나는 청소년 폭력 방지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내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기획한 건 2000년도다. 덴마크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히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게 하는 장’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다. 고민을 하다 ‘그냥 대화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책으로 그리고 독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웬걸. 호응이 뜨거웠다. 독자로 참여한 청소년도 사람책들도 즐거워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행사를 열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렇게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이 행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나를 지구 반대편 여기 한국까지 오게 했다.

나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곳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목차

1. 비행 청소년이라기보다 꿈꾸지 않았을 뿐
2.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3. 당신에게 흑인 친구가 있다면?
4.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람책이 될 수 있다.

추천합니다!

왜 책보다 사람인지 휴먼라이브러리의 시작이 궁금한 분

휴먼라이브러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

비행 청소년, 싱글 대디, 시민운동가... 그 어떤 이름으로라도 불러 주세요!

미리보기

-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humanlibrary.org/>
-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umanlibraryorg?fref=ts>)
- 로니 애버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onni.abergel?fref=ts>
- 희망제작소 휴먼라이브러리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umanLibrary.TheHopeInstitute>)

2. “철밥통으로만 알기엔, 부족해”



—
공무원

—
강평석 (완주군청 마을회사육성팀장)

서문

나는 1989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경영학을 전공하였기에 그 당시 인기가 높았던 증권회사에 입사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6년을 버티고, 34살에 늦깎이 공무원이 되었다. 첫 10년간은 법과 예산을 방패막이 삼아 지낸 전형적인 공무원다운 세월이었다.

2009년도, 우연한 기회로 희망제작소에서 하게 된 1년간 파견생활은 안이했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았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은 당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현 서울시장)가 내게 해준 칭찬이다.

지금 내 역할은 마을회사육성담당. 흔하지 않은 직책이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완주군 마을공동체의 어제와 오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공동체는 102개소, 지난해 유독 속을 썩인 마을공동체들도 있지만 모두가 소중하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으랴!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로서 ‘완주군의 농업혁신, 농촌활력창출 사례’를 보고하였다. 청와대에서 경험한 세 번의 ‘멘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

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살려내는 참말로 어렵고 과중한 업무이어서 때론 힘들지만, 월급쟁이 공무원이 아닌 보람과 긍지가 가득한 진짜 공무원이길 꿈꾼다.

목차

1. 34세에 늦깎이 공무원이 되다.
2. 법과 예산을 방패막이 삼아 지낸 10여 년
3. 시민단체(희망제작소)로 출근하는 공무원, Turning-Point가 되다.
4.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사연
5. 완주군 마을공동체 어제와 오늘을 책임지는 '마을회사육성담당'
6. 102개의 말썽꾸러기 손가락들
7. 청와대에서 완주군 농촌 활력 창출사례 소개, 세 번의 멘봉은 보너스
8. 월급쟁이 공무원이 아닌 보람과 긍지가 가득한 진짜 공무원을 꿈꾼다.

미리보기

-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칭찬한 이 사람은?
(프레시안/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13.12.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226081711
- 완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새정부 정책으로 구체화 수순 (전북일보/김경모/13.03.24)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65739>
-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완주군의 강평석 계장 (원순닷컴/10.01.15)
<http://wonsoon.com/1101>
- 희망제작소에 파견된 완주군청 강평석 공무원의 희망사항 (희망제작소/09.04.23)
<http://blog.makehope.org/hope/85>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ps3838>

3. 하루 24시간을 조각하는 소년



- 비제도권 학생
- 김경보 (지구마을청년교육협동조합 이사)
-

서문

‘김경보’라는 사람책을 찾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24시간을 온전히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2006년이었던가. 그즈음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났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전보다 많아졌고 그 이유도 다양해진 것이다. 예전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제아 혹은 엘리트, 부적응아와 같은 딱지를 붙인다.

나는 14살 때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만약 당신이 14살 때부터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은지. 나는 다행히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 속에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2003년 입학한 대안학교도 두 달 만에 자퇴했고, 학교 밖으로 나온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꽤 긴 부적응 기간을 가졌다. 공백기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지? 무얼 해야 하지? 대학은 내게 도움이 될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등의 고민을 했다. 내 고민으로도 벽찬데 남들의 따가운 혹은 신기한 듯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 시간이 벌써 10년 남짓이다.

‘김경보’라는 사람책을 찾는 사람들이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선입견 없이 읽어 주었으면 한다.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학교 밖 생활에 대한 환상과 불안,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24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2. 끼리끼리 만난다, 소수자들의 삶
3. 처음 입어보는 제복
4.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 하는 일, 가슴 뛰는 일

추천합니다!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
 학교 밖 일상이 알고 싶은 분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이 궁금한 분 누구나



4.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
20대

—
김경현 (시인)

서문

저는 ‘20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88만 원 세대’, ‘삼포 세대’ 죠. 사실 그들이 어떻게 지칭하든지 저는 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아주 잘.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제 모습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이유로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공인 음향과는 전혀 다른 일인 글을 쓰며, 돈도 못 벌면서 자존심과 고집만 부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늦게 일어나 늦게 잠들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 매일 술을 마시지만, 매일 시를 씁니다. 요즘은 정지원 편집장과 함께 질문 잡지 헤드에이크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사회가 말하는 20대의 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88만 원형, 삼포적 20대’ 사람이지요.

누가 뭐랍니까. 저 인생 저가 사는 거지. 저는 저의 자유와 방종에 대한 책임을 제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꼬박꼬박 달마다 몇만 원씩 기부도 하고 나름의 사치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20대가 그래서 되냐’ 고요? ‘시인이 그래서 되냐’ 고요? 안 될 건 뭐랍니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낸 20대가 아닌 저의 20대 인생을 사는 거죠.

아직 선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과정으로 본다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20대’ 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사회가 만들어 낸 이미지가 아닌, 당신의 20대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20대는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아프기만 하

던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20대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나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목차

1. 김경현 씨는 왜 그렇게 살아요?
2. 사회와 부모님이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기
3.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니까
4. 내 인생 내가 살기

추천합니다!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모님과 자녀
자녀를 한심하다 생각하는 부모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

미리보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imgangstar>

블로그 <http://kimgang.egloos.com>

헤드에이크 홈페이지 <http://theheadache.co.kr/>

5. 나는 ‘나’와 결혼했다



—
비혼주의자

—
김선화 (그리다협동조합 조합원)

서문

비혼주의라는 단어가 어색하다.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라벨을 붙인다. 지금 선택하지 않았을 뿐인데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왜’냐고 묻는다. 나는 행복하고 싶었고 지금도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목차

1. 무남독녀 외동딸, 이불 빨래하던 어린 시절
2. 내 인생의 전부였던 일 그리고 운동
3. 걸으면서 생각하기 : 어떻게 살아야 할까?
4. 나는 도전한다, 즐긴다 그리고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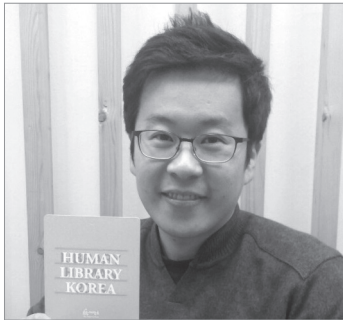
추천합니다!

혼자 살려고 할 뿐인데 주변의 등쌀을 견디기 어려운 분

요즘 젊은 것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지, 결혼은 꼭 적령기에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고 막연하신 분

6. 김 기자의 소심한 ‘바로잡습니다’



—
기자

—
김성환 (한겨레21 사회팀 기자)

서문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이 직업에 뛰어들지 마라.” 미국 백악관 최장기 출입기자였던 헬렌 토마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이 이야기를 모른 채 기자 세계에 뛰어들었네요. 사실 기자회견장에 새카맣게 물러든 기자들 틈바구니는 익숙하지만, 누군가의 앞에 서는 무대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 지금도 뛰면서 배우고 있는 기자이기도 합니다.(문득 생각해 보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더 많긴 하네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7년 동안 한겨레신문 사회부·경제부·문화부를 거쳐 지금은 한겨레21 사회팀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기사를 떠올려봅니다. 삼성특검·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4대강 사업 논란·세종시 이전 갈등·삼성 백혈병 노동자 문제·철도노조 파업… 그리고 수족관 동물들 이야기부터 할아버지들이 모인 야구 동호회 이야기까지!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 놓으면 한 보따리일 듯하지만, 오늘은 살짝 접어두려 합니다. 제 이야기, 그리고 세상 모든 김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니깐요. 이 시대의 ‘밈상’ 이지만 사랑받기를 꿈꾸는 이 시대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소심한 ‘바로잡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래요?

목차

1. 기자스럽지 않으시네요
2. 학보사기자, 신문기자, 그리고 잡지기자
3. 손 느리고, 말도 느리고, 귀까지 먼...
4. '권력의 제4부'에서 '기레기'까지
5. 넌 나쁜 기자, 난 착한 기자?
6. 자신감과 오만함 사이에서 줄을 타다
7. 오늘도 바로잡습니다

추천합니다!

평소 기사를 즐겨 읽으시거나 기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과 깊은 대화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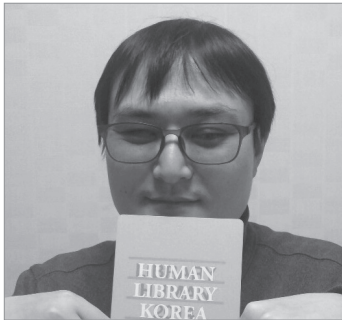
한겨레 TV 한겨레캐스트 '21의 생각'

- 한겨레캐스트 #193 (취재: 김성환) <http://www.hanitv.com/43699>
- 한겨레캐스트 #216 (취재: 김성환) <http://www.hanitv.com/45816>

김성환 기자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nghwan.kim.9828>

7. 장애에 적응하기



—
신체장애인

—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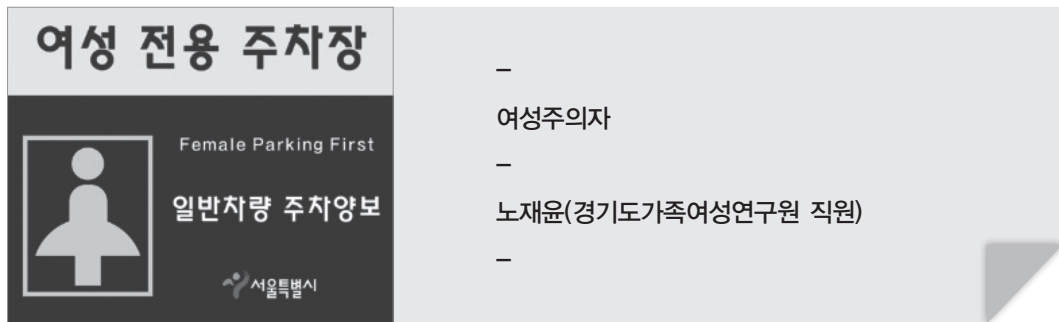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의 내 삶은 엄청나게 바뀌었다. 생물학자를 꿈꾸던 자연과학도는 엉뚱하게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었다. 실험실에서 세포와 씨름하던 나는 법정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싸우고 있다. 나에게 장애는 인생을 바꾸게 한 계기이자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친구이다.

나는 생물학을 연구하던 중에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시각장애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를 고려한 시험 제도와 문자 정보를 음성으로 바꿔 주는 보조기기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목차

1. 시각장애 이전의 삶
2. 시각장애를 가졌을 때의 고민
3. 시각장애 이후의 삶
4. 장애에 적응하기

8. “저는 여성주의자가 아닙니다만”



서문

나는 감히(!)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큰 관심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주제로 사람책이 되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미사에 참석하는 기분으로 드나드는 한 여성단체에 슬쩍 발 담그면서 가끔 뭔가 끼적댄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 때문 아닐까 싶어요.

굉장한 싸움과 논쟁을 담은 키워드지만, 동시에 논쟁이나 설득 같은 머리 아픈 일보다 스스로를 거울로 놓고 곰곰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 말해본 적이 없고, ‘나는 여성주의자’라는 정체감이 뚜렷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감하거나, 공감이 어려워도 뭔가 환기가 되거나, 최소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람책의 효용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카테고리는 사회과학-여성학이 아니라 자기개발서입니다.

목차

1. 왜 나보고 책이 되라 했을까
2. 복 받은 성장기 – 나, 여성주의, 언니들
3. 여성주의자 ‘남성’ – 선부른 기대와 오해
4. 여성주의 – 훈련, 태도, 언어
5. 여성주의, 당신의 이해관계는

추천합니다!

여성주의에 대해, ‘나’와 비슷하게 무식한 분

여성주의에 대해, ‘나’의 얘기를 하고 싶은 분

미리보기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기관지 '함께가는 여성'

특이사항

여성주의 자체가 궁금하면 종이책을 보면 됩니다. 이 책 일부는 당신 얘기로 채워주세요.

9. 채식하는 보디빌더



—
채식주의자

—
도혜강 (베지테리언 피트니스 코리아 대표)

서문

날씬해지고 싶은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요?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자부하나요? 자신의 젊음이 언제까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나요? 입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내 몸 안에 서도 과연 반갑다고 할까요?

저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있었던 끔찍한 정부의 폭력을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병 든 동물들을 치료할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고작 감기바이러스인 것을 산채로 땅속에 묻어 고통스럽게 죽게 했지요. 그 후로 저는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진실과 비밀을 캐기 시작했고, 많은 활동가들이 위장 취업까지 하며 어렵게 만든 다큐와 보고서들을 보며 참 많이 울고 반성했습니다.

고기를 무척 좋아해 고기 없인 못살던 내가, 입맛에 취해 '세치 혀의 노예'로 살던 내가 채식을 결심하고 비건 채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동물권에 눈을 뜨고 사람들이 갖는 채식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보디빌딩에 도전했습니다. 채식은 영양실조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마르고 허약하다, 단백질 부족으로 각종 질병과 불임이 온다는 낭설들을 벗겨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입상을 놓치지 않아 11개의 트로피를 받았고, 채식에 대한 터무니없는 관념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채식, 당신은 채식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나요?

목차

1. 왜 채식을 하는가
2. 채식은 편식?
3. 채식주의에게 단백질은 무시되고 있는가
4. 비건채식으로 보디빌딩이 가능한가
5. 채식주의의 사회생활
6.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싸우는 고집스런 채식주의의 신념
7. 채식이 주는 선물

추천합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잠깐이라도 채식을 해보고 싶지만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그 맛있는 고기를 끊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채식은 바로 포기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특별한 신념과 고집스런 정신이 없다면 채식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 다시 활기가 생기고 젊음이 되돌아오며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혹은 그동안 당신을 떠나지 않는 작은 편견이라도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싶다면 도혜강 사람책을 만나보세요.

미리보기

채식 몸짱 혜강의 슈퍼 다이어트 (경향BP 출간)

10. “우리 힘으로 바뀌나갈 거예요”



이주민

뚜라 (미안마센터 공동대표)

서문

눈앞에 키 185cm의 말끔한 중년 남성이 슬림핏의 코트를 입고 적당한 쿠션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 나긋한 미소로 긴 손가락을 입술 가까이에 대고 조근조근 말하는 이 남성, 그의 20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20년 전 그는 숨 막히는 장기 군부독재에 맞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가슴 뜨거운 고등학생이었다. 잦은 데모로 경찰에 쫓기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진 이 남성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가기 위한 비자가 늦어지는 사이에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지원한 곳의 합격통지를 받는다. 바로 한국의 산업연수생. 어디서든 기술을 배워 놓으면 쓸모가 있겠지 생각한 그는 자기 입으로 서슴없이 현대판 노예제라고 말했던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인권모독을 참을 수 없어서 한국 내 이주민들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자신이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기하며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벌인다.

정보에 어두운 이주민들을 위해 15개 언어로 이주민방송(MNTV)을 하고, 한국인들이 이주민을 이웃이자 친구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주민영화제를 개최했다. 그는 여전히 미안마인들을 위한 식당을 열고 한국어와 노동권을 가르치고 미안마행 항공권을 대행구매하느라 바쁘다.

다시 사람책 뚜라가 당신에게 던진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무심코 그린 중년 남성의 그림이 인생의 절반을 타국인 한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라면 과감히 이 사람책을 열어보시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는가.

목차

1. 산업연수생은 무얼 배우나요?
2. 내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조국의 군부독재 때문입니다.
3. 저항은 타향에서도 계속 된다.
4. 운동의 방향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추천합니다!

이주민 1백만 시대라는데 이주민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는 분

미리보기

이주민방송 <http://www.mntv.net>



11. 아줌마니까 할 수 있는 백만 가지 이야기



—
아줌마
—
류인혜 (주부)
—

서문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식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는 나는 아줌마다. 학교 일에 적극 참여하고, 낯선 사람은 없는지, 동네 골목골목 사각지대는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오지랖 넓은 나는 아줌마다. 근데 그게 어때서? 살 만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바자회도 열고, 고수에게 김치 담그기를 배우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논어를 공부하며 소통하는 동네를 희망하는 행동과 아줌마가 어느 마을에서나 필요한 거 아냐? 오늘도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교육, 환경, 공동체를 위해 동네로 나간다.

아줌마의 오지랖은 사회의 원동력이다. 아줌마들 지화자!

목차

1. 출산 이후 자신감이 떨어지는...
2.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허해지는...
3. 뒤늦게 사회생활을 준비하며...
4. 마을공동체, 내 눈길을 사로잡다

추천합니다!

홀로서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

아이들에게 대리만족을 기대하시는 분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와 아내를 무시한다고 느끼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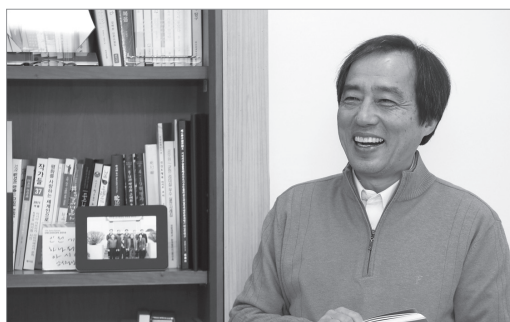
아이들이 크고 이젠 나 자신에 대해 고민이 되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분

아줌마들은 도대체 왜 그래? 궁금한 분 누구나

이런 아줌마들과 살고 있는 분



12.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꿈꾸며



—
자치단체장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서문

어린 시절의 꿈을 어른이 되어 이루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풀어보고 싶어 생물학자를 꿈꾸었는데, 대학에 가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연극을 하게 되었고, 선배들의 자장면을 배달하고 주전자를 들고 연습실을 오가다 갑자기 유치장 신세를 진 뒤론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잦은 도피와 연행은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수배 생활 중 명절이면 전이며 잡채를 만들어 기름 냄새를 풍기며 왁자지껄 떠들었던 기억, 풀무원 창립 초창기 무공해 비닐봉지에 물을 넣고 두부나 콩나물을 포장하던 기억들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꿈을 이루며 얻는 성취감 못지않게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노력하는 그 순간과 과정들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즐거움이 진짜 나의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저래 10년 차 행정가이지만, 행정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풀어야만 하는 매듭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여전히 까다롭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 새로운 방법과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때면, 다산 선생도 말리던 목민관이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철없이 낙천적인 구청장을 빌려보실 분, 있으신가요?

목차

1. 젊은이 얼굴을 보니 관운이 좋구먼
2. 연극과 데모, 그리고 나
3. 연극에서 정치로
4. 목민관만은 욕심낼 것이 못 된다는데
5.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동 세상을 꿈꾸며

추천합니다!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분
어떤 사람들이 구청장이 되는지 궁금한 분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http://namgu.incheon.kr>



13. 매일 빅이슈를 품에 안고 안테나 세우는 남자



—
노숙인

—
서명진 (빅이슈 판매원)

서문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항상 미소를 날리는 남자. 사실 이 남자가 사람 눈을 제대로 마주보기 힘들었던 소심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빅이슈를 만나고 나선 두려울 게 없는 42살 노총각은 요즘 봄날밴드에서 일렉 베이스를 연주하며 프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었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았던, 그렇게 젊음을 허비했던 지난 시간을 지우고 다시 희망과 나눔의 날개로 비상하고픈 사람책입니다.

목차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나는야 외톨이
2. 노숙, 숨길 이유도 숨겨지지도 않는 사실
3.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잡지, 빅이슈를 만났습니다.
4. 노숙인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미리보기

빅이슈 67호 '우리 동네 빅판' (동영상 보기 <http://www.bigissue.kr/1233>)

14. 사회복지사는 천사가 아니다



—
사회복지사

—
오영식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 팀장)

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사 캐릭터인 ‘보듬이’를 아시나요? 빨간 하트를 품고 있는 노란색 콩 모양의 천사입니다. 많은 시민이 사회복지사에 대해 갖고 있는 나눔과 봉사, 섬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지요. 각종 행사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사를 격려하며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천사 같은 사회복지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그 ‘천사’라는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사회복지사를 하나의 전문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착한 사람으로만 보고 그러기만을 기대하는 편견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대표적 공공서비스 직종인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묵묵히 보살피기만 할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며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할 말 하며 살고 싶습니다!

목차

1. 번역가를 꿈꾸던 영문학도, 사회복지사가 되다.
2. 사회복지사는 천사가 아니다.
3. 사회복지사는 자본주의의 시녀다?
4. 남자 분이라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공감을 못하시나 봐요?
5. 사회복지사, 구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이유는?

미리보기

- 육아를 고민하는 남성 싱글 사회복지사 (월간 작은책 2013년 5월호)
<http://blog.naver.com/razel/30182655154>
- 성명서 : 강북구 영유아의 희망을 지켜주기 위한 강북구청의 결단을 요구한다!
http://sasw.or.kr/zbxe/index.php?document_srl=283971&listStyle=list&mid=spot&page=8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506supul>

추천합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이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할 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5. 여대생이어서, 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
여대생
—
유지주 (이화여대 국제학부)
—

서문

맨날 밤새서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독서실 갔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데 웬걸요. 영어 수업이라 영어로 발표 준비하는데 재수 없다고 하고,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몇몇 있을 뿐인데 스타일 화려하다고 날티난대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하려다보니 국제학부였고 그 학부가 있는 곳이 여대였을 뿐인데 말이죠.

유학 다녀와서 개방적이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요즘 대학생이 주로 그런 것 같던데요. 그리고 개방적인 게 나쁜 건가요? 여대생은 화려하더라고요? 언론이 밤새 알바해서 등록금 버는 친구들 얘기는 안 실어주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만나서 같이 얘기해 봐요.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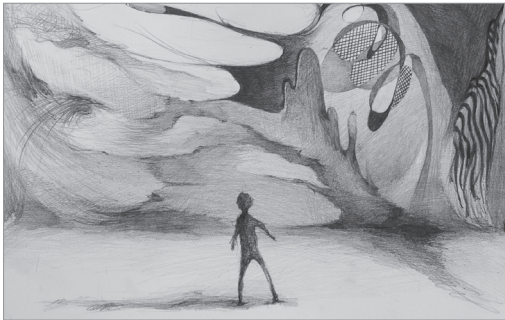
1. 이대생은 시집 잘 간다? 언제 얘기예요?
2. 여대생에 대한 편견 중 사실은 독하게 공부한다는 것 빼곤 없어요.
3. 유학생이라 문란하다? 한국보다 통금 심해요.

추천합니다!

여대생의 '진짜' 일상이 궁금하신 분

드라마와 영화 속 유학생살이 현실이라고 믿고 계신 분

16.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있다.



—
예술가

—
이덕순 (화가)

서문

1992년 3월 21일 처음으로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게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화가이기 이전에 저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2014년을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며 대답을 얻고, 내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림은 제가 만나고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자, 사람과 소통하며 가치를 생성하는 매개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며 만났던 행복을 이야기하며, 예술 감성을 통해 일상을 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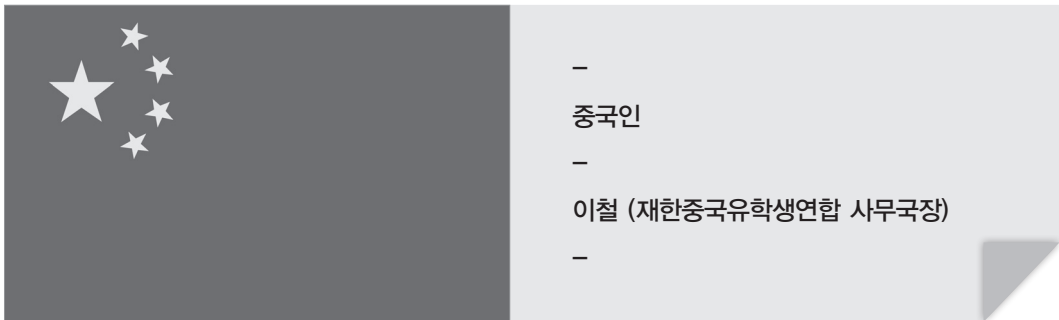
1. 나의 미술 역사
2. 재능을 넘어서는 간절함
3. 예술적인 삶이란?
4. 예술가는 특이하지 않다.
5. 나의 그림 속에 너의 이야기

미리보기

작품 소개 <http://neolook.com/archives/20131115e>

<http://neolook.com/archives/20090311a>

17. 중국인도 다 달라요



서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사실 꼭 한국이어서는 아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사업 친구가 한국인이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제가 한국에 온 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느새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2008년부터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유학생이 한국에 쏟아지는 등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한국 대학들이 국제화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여러 변화의 기점이 있지만요.

제 인생에서 4분의 1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끄럽다거나 썩지 않는다거나. 요즘은 한국 오는 중국인들은 다 부자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중국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본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일부 중국인들의 모습만 보고 중국인 모두가 그렇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차

1. 저는 산시(山西)에서 왔습니다.
2. 중국대륙 전체에 황사바람 부는 건 아니에요.
3. 중국인 근로자,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여행객
4.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한국 사람 수다가 더 시끄럽대요.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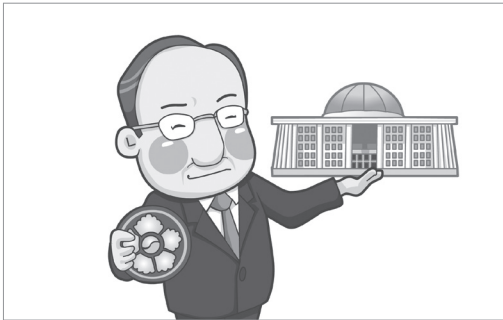
중국과 중국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

미리보기

중국인 유학생, 그들의 힘든 속사정 (20대가 만드는 20대 대표 언론 20 고향 / 2013.04.30)



18. 환갑의 정치 신인,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이학영 (19대 국회의원)

서문

그는 시인이다. 1984년 '실천문학'에서 펴낸 시선집 <시여 무기여>로 등단했고 <눈물도 아름다운 나이>, <꿈꾸지 않는 날들의 슬픔> 등의 시집을 냈다. 그는 운동가다. 6.10 민주항쟁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안고 시위에 참여했고, 순천 YMCA 간사에서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까지 우리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그는 정치인이다.

소설가 공선옥은 말한다. 우리 시대가 '전사' 출신 정치인을 만나기로 이학영이 마지막일 것이며, '시인' 출신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느냐고. 이번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전사'로 불굴의 의지를 불사르고 '시인'으로 눈물로 많은 영혼을 아우르는 한 정치인의 일생을 듣는다.

목차

1. 교사가 꿈이었던 유년 시절
2. 민주화 운동의 시련으로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청년
3. 시민사회 운동으로, 운동으로
4. 시민을 위한 정치에서 시민을 섬기는 정치로

추천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

정치와 우리의 일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 분

미리보기

이학영 의원 홈페이지 <http://www.ofthepeople.kr/web/page/>



19. 쌀 한 톨이 품은 이야기



농부

장명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 부의장)

서문

나는 모태 농부다.

농사를 업으로 삼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는 것은 내 가족 그리고 나아가 한 나라의 희망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농사만 열심히 짓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놈의 ‘세상’이, ‘정권’이라는 것이 성실하게 땀 흘리는 농민을 자꾸 휘두른다. 그러다 보니 농사지으면서 국회에서 데모할 일도 생긴다.

나는 1년의 대부분을 농사짓고, 때때로 데모를 하고, 지금은 농부의 현실에서 생태적인 해결책을 세우기 위해 영농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농부로 산다는 것. 참 불편하다. 하지만 다행히 불행하지는 않다.

나는 자랑스러운 농부로서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불의와 싸우며 농사짓는 불행하지 않은 농부이다.

책 목차

1.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농업이 대세다!
2.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3. 농부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4. 식량대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합니다

‘농’ 민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귀농의 현실을 알고 싶으신 분
농민운동이 궁금하신 분



20. 편부모가 아니라 ‘한’ 부모입니다



—
한부모 가정

—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공동대표)

서문

겉이 낫다.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오롯이 전업주부로서 살았다. 나는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먹여 살리며 잘 키울 수 있을까? 혼자 아이들을 키운 지 어느덧 10년. 종종 나는 10년 전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그때 나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목차

1.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이 두려우신가요?
2. 함부로 던진 말의 비수에 대처하는 법
3. 한부모라고 홀로인 것은 아니다.
4. 우리 아이들, 한부모와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추천합니다!

한부모가 될 예정이나 마음이 충분히 추슬러지지 않은 분
갑자기 한부모가 되신 분
내 가족이 아닌 한부모 가족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

21.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
동성애자

—
정을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서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인권’을 알게 되었다. 이후 6년 넘게 다니던 도넛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인권활동의 길로 들어섰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당신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여전히 고민한다.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

목차

1. 성소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 젠더 뒤집기, 당신은 이성애자가 맞나요?
3.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소수자가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4. 내 안의 편견, 과연 옳은 걸까요? 그 편견이 벽을 만들지 않았나요?
5. 동성애 혐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천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

가족과 친구 중에 성소수자가 있으신 분

22. 나는 오늘도 시민을 위해 달려간다



—
경찰

—
조효익 (충남 당진경찰서 경장)

서문

경찰은 다가가기 어려운 무서운 사람이다. 항상 사건이 진정된 뒤에 나타난다. 순찰만 돌지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 자주 비리를 저지른다. 혹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범죄예방을 위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순찰차량.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형사들.

경찰들의 세상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7년이라는 시간동안 경찰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경찰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목차

1. 경찰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2. 경찰로 살면서 느끼는 것들
3. 경찰에 대한 편견,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4. 국민이 없다면 경찰도 없다
5. 동료로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악성 댓글이다

추천합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분

경찰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

경찰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분

미리보기

- 경찰박물관 (<http://www.policemuseum.go.kr/>)
- 폴인러브 (<http://polinlove.tistory.com/>)



23. 전라도 사람들은 왜 그랴?



—
지역
—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
—

서문

음식하면 전라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대체 전라도 음식은 왜 맛있는 걸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왜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걸까요?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전라도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엄니 아부지들의 삶과 문화는 무엇일까요?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생태환경과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훼손된 지역,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알고 싶다면....

목차

1. 전라도 땅은 뭐가 달라?
2. 닉들이 흥어 맛을 알아?
3. 시달려온 맛, 한의 맛과 흥이 있당께
4. 향꾼에! 싸목싸목! 암시랑토!
5. 권있다, 개미 있다? 이게 뎡 말이어?

추천합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전라도인데 전라도를 잘 모른다고 생각되는 분들, 전라도랑 하등 관계가 없는데 그냥 전라도가 싫은 사람들. 전라도 음식이 왜 맛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 특히 흥어 맛도 모르면서 흥어 어찌고저찌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들춰볼 만합니다. 지역문화를 기록하는 잡지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오늘날 한국의 모든 시골이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너지고 전통의 문화가 사라지는 고향의 실상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도 권합니다.

미리보기

전라도에서 나고 자라서 잠시 서울서 공부한 시기를 제외하곤 50년을 전라도에서 사는 토종 전라도 사람. 전라도 골골이 섬섬이 다니면서 사람살이와 문화를 기록하는 전라도닷컴 편집장으로 14년. 통권 142호의 월간잡지 <전라도닷컴>과 단행본 《버꽃 피는 마을은 아름답다》, 《풍년식탐》 두 권에 담긴 전라도 사람살이의 가치와 맛 이야기.

특이사항

한국에서 지역말(사투리)을 표준으로 삼는 유일한 월간지 전라도닷컴과 전라도 오일장 장날표를 선물로 나눠줄게요.



2014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

부 록

휴먼라이브러리 소개

‘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것

코펜하겐 사람책 다니엘 (Danial),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 뉴욕 출신으로 지금은 덴마크 여성과 결혼해서 코펜하겐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작년 6월 코펜하겐 휴먼라이브러리를 방문했을 때,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며, 코펜하겐 사람책 2명을 초청, 사무실 인근 공원에서 즉석 휴먼라이브러리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나의 이력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뉴욕커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뉴욕 출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일을 잘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뉴욕과 덴마크 사회의 삶의 방식, 차이에 대해 일상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흥미로워합니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두 사람책 중 한 명인 다니엘은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인 로니 애버겔과 20년지기 친구로, 초창기부터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베스트셀러라 자부하고 있었는데, “커피 한 잔만 사주면 언제든 만난다.”고 쿨하게 웃으며 말할 정도로 사람책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책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한 치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책을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먼라이브러리를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다양한 삶에 대해 오픈 마인드가 생기고,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또한 휴먼라이브러리의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비폭력 청소년 운동으로부터 탄생

휴먼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청년 NGO인 ‘스탑 더 바이올런스(Stop The Violence, 폭력을 멈춰라)’가 주관하여, 덴마크의 최대 뮤직페스티벌인 ‘로스킬레 페스티벌(Roskilde Festival)’의 부대 행사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스탑 더 바이올런스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청년 단체입니다. 스톱 더 바이올런스는 5명의 코펜하겐 젊은이들이 폭력 방지를 위해 1993년에 자발적으로 구성한 운동 조직인데, 이 운동은 그들의 한 친구가 무자비하게 칼에 찔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약 7천 명의 회원이 이 운동에 가입했고, 대다수 회원의 연령은 12~18세였습니다. 스톱 더 바이올런스의 프로젝트매니저가 로스킬레 페스티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첫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고, 로스킬레 재단이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휴먼라이브러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중 한 명인 로니 애버그엘(Ronni Abergel)은 첫 번째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이후, 휴먼라이브러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NGO, 공공기관들을 만나 휴먼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이벤트를 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산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된 파트너는 유럽위원회였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휴먼라이브러리의 매뉴얼 제작부터 다양한 국가의 이벤트 론칭을 위한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휴먼라이브러리가 확산되고 정착되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갖는 힘

‘모든 것은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좀 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해야 한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단순함의 힘을 강조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휴먼라이브러리의 저력은 바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창립자인 로니 또한, 휴먼라이브러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누구나 쉽게 열수 있는 방법론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일반 도서관과 거의 똑같이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독자가 방문해 정해진 시간 동안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또 다른 책을 빌리는 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휴먼라이브러리의 책은 사람이라서 독자와 ‘사람책’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지요. 물론 휴먼라이브러리는 각 나라별, 지역별로 운영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상 대출 외에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책은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 혹은 고정관념과 맞닥뜨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고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들의 질문도 받습니다. 또한 사람책이 독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낮선 사람은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이다.’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의 오래된 슬로건인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휴먼라이브러리를 설명해 주는 슬로건으로도 많이 사

용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의 목적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일상에서 만납니다. 채소가게의 아랍상인, 피자가게의 터키 사람, 모로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등등. 그렇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공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자들과 한 번이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본적이 있나요? 서로 다른 음식문화에 대해서, 이슬람교도라면 히잡과 같은 복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만나 얘기할 수 있어야 공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와 경험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로니 애버그엘(Ronni Abergel)

유럽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듯이 코펜하겐에서도 이민자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코펜하겐 인구 54만 명 중 이민자 비중은 약 22%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른 인종, 다른 종교 집단과 교류경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덴마크 시민 10명 중 8명은 해당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니가 코펜하겐에서 이민자들과 일상적 만남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150만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국내체류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 국민 32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이 평균 10%임을 감안할 때, 2.8%는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소통, 교류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3대 특징은 무형식, 다양성, 저예산

휴먼라이브러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 형식과 규모의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무형식, 다양성, 저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3대 특징



무형식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참가자들과 사람책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 질문으로 진행



다양성

휴먼라이브러리는 주제, 공간, 참여자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음. 장소도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센터, 대학 캠퍼스, 쇼핑센터, 직장 공간 등 언제, 어디서나 가능



저예산,
고효율

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사람책도 자원봉사. 각 지역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는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를 추진하기 위해 로니 애버겔과 회의를 진행할 때, 로니가 강조한 몇 가지 운영원칙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행사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책이 비용을 받는 순간, 본연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단, 장거리 사람책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통비는 보조할 수 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 펀딩을 시도할 경우에도 펀딩사의 윤리성,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사람책

일반 도서관이 그렇듯이 휴먼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책, 바로 사람책입니다. 그래서 휴먼라이브러리 가이드북에서는 사람책 선정 방법, 사람책 제목 정하기, 사람책과 사전미팅 방법, 사람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사람책들의 체험 후기 등 매우 많은 분량을 사람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핵심으로 하지만, 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책들이 반드시 사회적 편견의 대상, 혹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굴곡진 인생을 들려주고픈 사람, 그 어떤 주제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먼라이브러리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불건전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책 (예/ 마약남용자, 축구 홀리건), 도덕적, 정치적으로 의문시 되는 사람책 (예/ 신나치주의자), 개인적 믿음을 전파하거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사람책 (예/ 종교인, 영업인)은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 행동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책, 예를 들어 마약중독을 극복한 사람 등은 포함시킬 수 있다고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먼라이브러리의 단골책들은 ‘동성연애자’, ‘경찰관’, ‘환경주의자’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사람책들을 초청하기도 하는데, 정신병, 우울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휴먼라이브러리가 개최되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주술사, 침술가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책이 되기도 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람책 목록

장애, 안면장애인, 여성 소방관, 축구열광팬, 장의사, 치유자, 노숙인, 동성애자, 인문주의자,

이민자, 기자, 레즈비언, 무슬림, 경찰관, 정치인, 난민, 엄격한 채식주의자, 회계사, 인류학자, 알코올 중독자, 망명 신청자, 금발 여성, 불교 신자, 보디빌더, 대머리, 양성애자, 맹인, 관료, 암환자, 대마 흡입자, 성직자, 감독, 공산당원, 청각장애인, 치과의사, 당뇨병환자, 외교관, 장애인, 무도회 1등 수상자, 환경운동가, 전 조폭, 페미니스트, 장의사, 도박 중독자, 천재 연구자, 그래피티 아티스트, 해커, 증오범죄 희생자, 힌두교도, 히피족, HIV 보균자, 노숙자, 이맘, 유대인, 재판관, 변호사, 사서, 남성 아기 돌보미, 남성 간호사, 매니저, 수학자, 시장, 정신장애자, 기상학자, 나이트클럽 댄서, 주차장 직원, 중재자, 매춘 종사 여성, 철학자, 경찰관, 성형외과 의사, 점술인, 랍비, 치안경비원, 가출 아동, 시크교도, 심리학자, 편부, 스트리퍼, 병약한 사람, 트랜스젠더, 실직자, 마녀, 노동중독자, 동물학자...

휴먼라이브러리 FAQ

휴먼라이브러리를 처음 개최하고자 하면 질문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 본부에서는 전 세계 기획자와 운영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모든 휴먼라이브러리가 이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제는 없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기획자의 의도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먼라이브러리 글로벌 활동을 위해서는 덴마크 휴먼라이브러리와 사전협의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휴먼라이브러리 공식 가이드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Q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개최하나?

특정 편견 및 고정관념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인 자격으로도 개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Q 휴먼라이브러리는 주로 어떤 장소에서 개최되나?

휴먼라이브러리는 공공도서관, 페스티벌, 대학, 컨퍼런스, 학교, 쇼핑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개최됐다. 책을 대출하여 읽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Q 사람책이란 무엇인가?

사람책은 사람들의 편견 해소를 위해 자원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대출한 독자와 정중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편견에 도전한다. 사람책의 제목은 그들이 경험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 대변될 수 있도록 붙여진다.

Q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계급, 종교, 라이프스타일 등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편견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책이 될 수 있다. 사람책 제목은 이러한 편견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그들의 마음 속 편견을 직면하고 도전해 볼 수 있다.

Q 휴먼라이브러리 개최를 위해 몇 권의 책을 준비해야 하나?

2~3권에서부터 70권 이상까지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책을 모집해 다양한 편견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프로그램 진행 장소의 크기 및 운영자의 수를 고려하도록 한다. 처음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하는 경우 10~15권 정도의 사람책이 적당하다. 이 정도 숫자면 어느 정도 다양한 편견을 포함할 수 있고, 3~5명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자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Q 사람책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에게 안전 관련 이슈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안전 관련 상세 내용은 휴먼라이브러리 안내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에 걸쳐 수천 건 이상의 만남과 대화가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책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사람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어떤 사람책을 어떻게 모집할지 신중히 결정하고, 운영자의 관련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단어나 문구를 만들어 대화가 안전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Q 우리 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한 가지 주제만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해도 되나?

안 된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지 모를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고자 한다.

Q 사람책 제목을 창의적이고 별나게 정해도 되나?

사람책의 역할은 그들이 겪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는 이 점을 사람책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따라서 사람책의 제목은 그들이 경험한 편견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간단해야 한다.

효과적 사람책 제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난민, 조울증, 게이, 전(前) 갱 단원, 이슬람교도, HIV 감염자, 트랜스젠더, 젊은 한부모, 알코올중독 회복 중인 자, 이민노동자, 전(前) 재소자, 경찰관, 정치인 등.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책 제목 자체가 독자들의 마음 속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우리 단체의 활동 및 신념을 홍보하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활용해도 되나?

안 된다.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 차별에 도전하기 위한 평등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특정 신념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단체 및 개인을 홍보하거나, 상업용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휴먼라이브러리

작년 12월,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은 미국 TED에 출연,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휴먼라이브러리는 단순히 다양한 교육방법론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민주시민 학습의 장이자 배움의 플랫폼으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국제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매년 기획자들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28일~1월30일에는 태국에서 '아세안 국가에서의 휴먼라이브러리 개발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얼마 전 각국의 휴먼라이브러리 최근 소식을 로니가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도 참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덴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결합은 많지 않으나, 휴먼라이브러리의 역사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도서관 조직, 덴마크 도서관협회, 지역 내 education center, 직업학교, 학교 등을 중심으로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의회나 지방정부 대상으로 훈련/워크숍에 활용되기도 함. 주로 프로젝트 성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직업학교에서 차용이 활발한 편.

* 노르딕 국가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차원에서 함께하는 이벤트도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휴먼라이브러리가 활성화된 곳이기도 하며, 국가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상당한 편.

*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휴먼라이브러리가 하나의 기념비적 시도가 될 것 같다고 하며, 마찬가지로 2014년 말레이시아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기념비적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함.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휴먼라이브러리 추진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함.

* 유럽국가 중에서는 특히 영국이 강세인데, 홈페이지 운영도 활발하며, 특히 미디어와 협력을 통해 다큐멘터리도 제작 준비 중이라고 함.

* 미주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활발, 특히 밴쿠버 지역의 활동이 활발. 미국에서는 2013년 말에 로니가 TED에 출연, 휴먼라이브러리 강연 진행.

* 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얼마 전 이집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앞의 글은 희망제작소 휴먼라이브러리 기획기사 '(2)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것'을 참고 하였습니다. 그밖에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akehope.org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